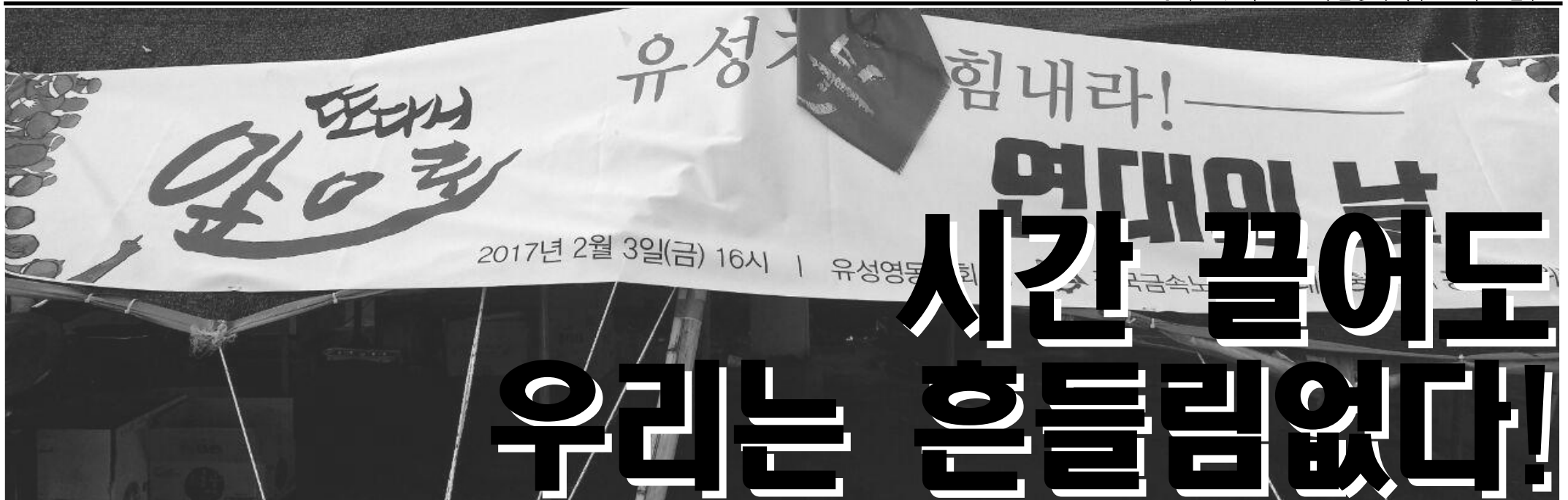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39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7년 2월 6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시간 끈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선고가 2월 17일 이뤄진다. 6년 동안 유성기업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왔다. 재판이 벌어지는 중에도 계속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피해볼 생각이었겠지만 달라지는 건 없다. 박근혜나 유시영이나 범죄자들은 그저 시간 끌 생각 뿐인가보다.

열사에게 사죄하고 노조파괴 중단해야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는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다. 금속노조 유성지회의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지회 조합원들을 범법자 취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짜 범죄자는 유시영 대표이사다. 이제 곧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 유성기업이 자행한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로 판결났고, 어용노조는 설립무효로 판결났다. 이제 그 모든 행위에 대해 유시영 대표이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할 때이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전에 인간적 도리부터 다해야 한다. 유시영 대표이사는 한광호 열사 앞에 사죄하고 노조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1년이 다 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열사 앞에 진정성 있게 사죄해야 한다.

지회 조직력과 지역 연대는 굳건하다!

노조파괴와의 6년의 싸움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최근까지도 유시영 대표이사의 시간끌기로 일관했다. 얼마나 더 싸움이 길어질지 불안할 수도 있었지만,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지역의 연대도 여전히 굳건하다. 지난 3일 유성기업 영동공장은 오랜만에 지역 연대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지역의 많은 동지들이 열사투쟁에 필요한 투쟁기금 모금부터 조합원 응원을 위한 고기 파티까지 함께 했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끝장날 때까지 이 연대의 힘은 계속될 것이다. 질긴 쪽이 승리한다.

이래오토모티브 분할매각 저지하자!

이래오토모티브지회가 분할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GM의 수주 조건 때문에 공조사업부를 중국 SDAAC와 합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회는 분할매각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싸우고 있다. 이미 작년에 희망퇴직까지 강행했는데 1년만에 분할매각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경영진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이래오토모티브는 델파이 지분 인수과정에서 사모펀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 인해 단기적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조사업부를 분할 매각하고 수익이 취약한 사업부는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노동자들만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지회는 특별단체교섭, 소송, 투쟁을 병행하며 분할매각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 상경투쟁도 진행 중이며 2월 7일(화) 13시30분에는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차례 매각투쟁, 희망퇴직 투쟁을 겪어왔는데 또다시 고용불안에 내몰릴 수는 없다. 연대의 힘으로 꼭 승리하자.

* 이번주 일정 *

■ 열사 양재동 농성

일시 : 2/7(화) ~ 8(수)
장소 : 양재동 현대차본사

■ 이래오토모티브 상경집회

일시 : 2/7(화) 13:30
장소 : 서울 성수동 이래 본사

■ 지부 단협위 2차 회의

일시 : 2/9(목) 14:00
장소 : 지부 회의실